

취한 상대와의
동의 없는 성관계

합의 없이 흥분제 등을 사용하여
유도한 성관계

어디서 만났든, 어떤 관계이든

그건 강간입니다

‘동의’란 상호 존중에서 출발합니다.

※ 이 팸플릿을 원하는 장소에 포스터처럼 게시해 주세요!

Rape is Rape

강간 아닌 강간은 없다

성폭력이 발생할 때 술을 마신 사람의 비율은 피해자 중 55%, 가해자 중 74%!
그러나 음주여부는 성폭력 피해자에게는 비난이 되고 가해자에게는 핑계가 됩니다.

술을 마신 것이 성폭력 가해의 아무런 변명거리가 되지 않듯,
성폭력 피해에도 아무런 비난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.

강간을 피할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.
사회에는 '강간하지 말라'고 외치는 더 강한 목소리가 필요합니다.
상대방과의 '동의' 없는 모든 성관계는 강간입니다.

의식이 없거나, 술이나 약물로 취했거나, 자고 있거나, 강요 받았거나,
다른 선택권이 없는 상태에서의 동의는 동의가 아닙니다.

※ 참여해 주세요 ※

- 이 팸플릿을 트위터, 페이스북, 인스타그램에 **#그건_강간입니다** 해시태그로 인증해 주세요!
- 캠페인은 후원금으로 진행됩니다. 우리 1005-000-955909 (사)한국성폭력상담소로 후원해 주세요.
- 이 팸플릿은 한국성폭력상담소 술과 약물을 활용한 성폭력 방지 캠페인 기획단이 제작하였습니다. 한국성폭력상담소 홈페이지 (www.sisters.or.kr)를 참고하여 이후 일정에 동참해 주세요!
- 참여문의 또는 주제와 관련하여 자신의 경험을 나누어주시길 부우 antialyakrape@gmail.com으로 연락 바랍니다.